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영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의 직무에 대한
담론분석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한 지 희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의 직무에 대한
담론분석

장 영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한 지 희

인 준 서

한지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담론을 통하여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교사들의 현장 속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가지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참여관찰과 면담을 주요방법으로 하는 질적인 접근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2.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로 근무 하게 된 동기와 보람은 어떠한가?
3.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4. 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2010년 4월 5일부터 2010년 8월 27일까지 3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6회의 참여관찰을 실시하였으며 24회의 교사 개별 면담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 연장 담당 교사로 모두 2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이다.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시간 연장 교사와의 면담, 각종 연구자료의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자료 전사본과 현장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학부모의 요구와 행정기관의

권유로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이 편안하게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장시간 보육으로 인해 영유아들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표출되기 때문에 가정과 보육시설이 서로 연계하여 영유아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게 된 동기는 기혼인 교사는 주간에 가사 및 육아로 인해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미혼인 교사는 자신의 취미 생활 및 학업으로 인해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나타냈다. 또한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보람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의 즐거움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학부모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시간 연장 보육 장소는 주간 보육실을 겸용하여 사용하였고, 혼합연령 구성과 주간 보육에 비해 참고 자료 부족 및 발달 수준의 차이로 인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시간 연장 담당 교사와 주간 교사는 근무 시간이 다르고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동료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원만한 동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열악한 처우와 과중된 업무는 교사의 이직을 높이기 때문에 시간 연장 교사를 위한 근무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 되어야 하며, 또 다른 방안으로 대체 교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 연장 영유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실외놀이 등 융통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교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늦은 시간 아동과 교사만 남아있을 경우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아동의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응급상황 시 부모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교사 혼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2인 이상의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시간 연장 보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유아들의 질 높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 연장 담당 취사부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자의 연구 배경	5
II. 이론적 배경	8
1. 시간 연장 보육의 개념과 운영 현황	8
1) 시간 연장 보육의 개념	8
2)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현황	9
3) 외국의 시간 연장 보육 실태	13
2.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역할 및 직무환경	16
1)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역할	16
2)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직무환경	18
3. 선행연구	22
III. 연구방법	25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기관	25
2. 연구 절차	30
3. 자료 수집	31
4. 자료 분석	33
IV. 결과 및 해석	35
1.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35

1) 맞벌이 가정에 대한 행복한 지원	35
2) 가정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가 최고	37
3) 부모는 웃지만 아이들은 운다	38
2.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로 근무하게 된 동기와 보람	40
1) 시간 연장 교사로서 근무하게 된 동기	40
2) 시간 연장 교사로서 근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보람	41
(1)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의 즐거움	41
(2)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인사	42
3.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43
1) 시간 연장 아동 및 교사를 위한 공간 부족	43
2) 영·유아 통합보육의 어려움	44
3) 시간 연장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의 어려움	46
4) 교사로서 소속감 없는 나	47
4. 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49
1) 시간 연장 담당 교사의 근무수당 및 시간외 수당 지원	49
2) 대체교사제도 활용	50
3) 다양한 시간 연장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2
4) 시간 연장 아동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	53
5)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한 시간 연장 교사 2인 이상 의무적 배치	54
6) 시간 연장반을 위한 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56
7) 아동들의 영양가 있는 저녁식사를 위한 취사부 배치	57
V. 결론 및 논의	59
1. 결론 및 논의	59
2. 제언	68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도별 시간 연장 보육현황	10
<표 2> 보육시설 유형별 시간 연장 보육 현황	10
<표 3>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단가	12
<표 4> 시간 연장 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13
<표 5> A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하루일과	26
<표 6> B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하루일과	27
<표 7> K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하루일과	28
<표 8> 교사들의 일반적인 배경과 시간 연장 어린이집 유형	30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이 확대되고,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자아실현 요구가 증대하면서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도에 42.8%이었던 것이 2010년 현재 50.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및 이로 인한 보육문제는 이제 사회 공동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여성 및 남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나아가 미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자녀양육지원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날로 가속화되는 산업화로 인해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일해야 하는 직장인,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 야간과 새벽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인들,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등과 같이 하루 중 어느 시간이나 일이 가능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강문희, 김매희, 이경희, 정정옥 2000). 이러한 직종에 근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장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근로형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라고 있다.

1995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연장 보육개념이 첫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부산, 안양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전국의 보육시설에서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실시하였으며, IMF 경제위기 속에서 그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여성가족부는 시간 연장 보육과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을 기준 시각인 저녁 7시 30분과 저녁 9시에 각각 5명, 2명 이상의 아동이 남아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2007년 3월 부터는 아동을 각각 3명에서 1명이상으로 바뀌었으며 국공립 위탁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하여 국공립 · 법인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 보육 의무를 강화 하도록 변경하였다(권혁미, 2010 재인용).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학부모들의 근무 시간에 비해 운영시간이 부족하여 학부모님의 근로조건에 대응하는 보육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숙희 외, 2007, 재인용).

전국 특수보육시설 중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666개소로 전국 보육시설 35,550개소의 7.6%에 달하고 있으며, 시설별 유형으로는 국공립 679개소, 법인 298개소, 민간 법인 1800개소, 가정보육 1,852개소, 직장보육 38개소, 부모 협동 1개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현황으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연장 보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한편, 시간 연장 보육은 부모나 자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장시간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이러한 양육경험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현재는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유아에게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유진, 2009).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들은 대부분 통합보육으로 주간교실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영유아들과 오후에 출근하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적 증가에 비해 시설 운영의 미비,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의 부족 등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시간 연장 보육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권혁미, 2010).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시간 연장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도 일반 영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지적·언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시간 연장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교재·교구의 보급, 시설·설비 등 보편적인 보육대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육교사는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여성부, 2004). 특히 영유아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의 특성에 의해 보육의 질이 많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영유아발달 및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을 위해 보호, 교육, 가족서비스를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인력 뿐 아니라 유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되는 보육교사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로서 자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랜 시간 부모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보육교사의 영향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교사와 근무조건이 다르고 시설 운영비 부족 및 야간 프로그램 부재,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 처우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들이 더 안정되고 만족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직무수행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하며,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바람직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2.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로 근무 하게 된 동기와 보람은 어떠한가?
3.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4. 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 연장 보육이라 함은 시간 연장, 24시간, 야간 보육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특수보육 형태를 말한다.

2) 시간 연장 보육

시간 연장 보육이라 함은 기준 보육시간 (07:30~19:30)을 경과하여 21:00 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특수보육 형태를 말한다.

3) 야간 보육

야간보육이라 함은 19:30 이후부터 익일 07:30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보육 형태를 말한다.

4) 24시간 보육

24시간 보육이라 함은 야근이나 밤늦게 일하는 부모와 밤에 직장을 가진 부모, 편부 가정의 아동, 부모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방치된 아동, 혹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24시간 종일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구자의 연구 배경

나는(연구자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어린 시절 나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언니랑 다툼도 자주 일어났지만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 같은 자매 역할을 하였다. 7살까지는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3남매를 돌보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 후 사교육비 지출이 크자 어머니께서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는 기혼여성들이 사회진출이 적었기 때문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나 24시간 보육, 방과 후 교실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나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께서 챙겨 놓은 간식을 먹고 학원을 가고 저녁에 퇴근하는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은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갑자기 기상 이변으로 천둥이 칠 때 언니와 나는 무서워서 집안에서 울며 엄마 오기를 기다린 적도 있고 학교에서 급한 일이 있거나 준비물을 깜박 잊고 가져 오지 않을 때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어서 옆집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을 한 기억도 있다. 어머니께서는 직장 때문에 어린 딸들을 놓고 제대로 챙기지도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언니랑 나는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자라려고 노력 하였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 보다 내 일은 내 스스로 해결 하였다. 특히 어린 시절을 어머니보

다 언니랑 있었던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자매들 보다 더 우애 있고 서로 힘이 들 때 마다 힘이 된 것 같다.

현장에서 나는 4년 동안 영유아들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부푼 꿈과 열정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곳은 교사 대우도 우대하고 근무 환경도 좋은 경기도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부모님의 퇴근이 늦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보육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었다.

시간 연장 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하여 10시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고, 주 업무는 어린이집 서류 및 어린이집 홈페이지 관리, 아이들의 저녁 식사 준비와 설거지 및 주방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님이 오실 동안 아이들과 편안안 분위기 속에 여러 가지 활동과 자유놀이를 하며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한 뒤 학업의 뜻이 있어 대학원 진학 때문에 나는 집에서 가까운 민간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민간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10시 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었다. 어린이집 주변상황은 낯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대부분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시간 연장반을 이용하는 가정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시간 연장 담당 교사는 늦은 퇴근과 여러 가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동료교사의 직무에 대해 고민 끝에 나는 시간 연장 담당 교사를 둘러싼 환경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총체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Sparadly(2006)가 정의한 문화기술적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한 부분으로서 현지인의 관점에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를 기술하는 연구이다. 특히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직무를 통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들의 관점과 삶의 방식

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배경을 가진 교사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연구는 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구성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사들의 직무 형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을 사용 하였다.

문화기술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교사들의 담론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연구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방법, 표현양식, 행동패턴, 생활양식, 사고, 지식, 경험, 문제 해결방법, 감정, 신념 등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얻는 방법이다(홍용희, 1998). 교사 담론은 하나의 목적을 지닌 대화로서(Marriam, 1998)연구 대상자로부터 주변 세계의 사람, 과거와 현재의 사건, 상황에 대한 감정, 생각, 의도, 해석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어서(Patton, 1990)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연장 담당 교사의 직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3곳의 보육시설을 참여 관찰하였다. 또한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담론을 통해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맥락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간 연장 보육의 개념과 운영 현황

1) 시간 연장 보육의 개념

2003년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시간별 보육유형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이란 용어대신 “시간연장 보육시설”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안성화, 2008).

이러한 보육의 기능에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준보육시간(07:30 ~ 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최소 21:00 이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해당시설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별도의 교사를 두어야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의 보육 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 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국공립 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에 시간 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하여야 하며 기 수탁자에 대한 재 위탁심사 시에도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시간 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보육을 할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아동이 방치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보육사

업 안내).

따라서 시간 연장 보육은 기존 보육시간내 귀가 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보육원 같은 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시설로서 보호자인 부모가 영유아들을 방치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자녀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고,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 할 수 있고 사회참여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영유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그러므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에 앞서 프로그램 다양화와 중요정보다는 건강과 안전, 영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

2)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현황

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현황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질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특히 양적 팽창은 현전하게 발전되었으며 2009년 말 기준으로 현재 35,55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175,049명의 영유아들이 보육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통계청의 보육통계(2002 ~ 2009)에 제시된 연도별 시간 연장 보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시간 연장 보육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개소,명)

시설현황	2002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설수	287	485	715	1,344	2,028	2,867	3,910	4,666
아동수	2,665	3,988	5,761	13,679	16,261	17,084	16,278	22,848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표 1과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근무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육수요가 낮 시간 뿐만 아니라 휴일,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증가 되는 추세이다. 2002년에는 287개소에서 현재 4,666개소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전체 35,550개 보육시설의 7.6%에 불과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시간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보육시설 유형별 시간 연장 보육 현황 (2009. 12. 31기준)

(단위: 개소,명)

구분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법인)	민간 (개인)	가정 보육	직장 보육	부모 협동
시설 수	4,666	679	298	140	1,660	1,852	36	1
보육정원	231,413	56,952	29,073	10,978	97,477	33,684	3,176	73
아동 수	22,848	3,252	1,414	768	9,520	7,810	79	5
시간 연장 보육 교사 수	3,778	465	171	95	1,467	1,548	79	5
전체 종사자 수	37,778	7,890	3,987	1,554	14,575	9,249	511	122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표 2와 같이 총 4,666개소 중 2,098개소가 법인과 민간 보육시설에서 시간 연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1,852개소 가정보육시설에서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공립에서는 67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간 연장을 받고 있는 영유아수는 전체 22,848명이고 종사자수는 3,778명이다.

최근에는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근로 형태로 시간 연장형 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따라야 할 것이다.

나. 시간 연장 보육시설 재정현황

1) 시간 연장 보육료

시간 연장 기준시간 초과(19:30 ~ 24:00)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 장애 아동은 3,400원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원 가능하며, 토요일의 경우 적용 시간은 15:30~24:00로 하고 있다. 시간 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하고 있고, 초과보육 이용시간은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한다. 만약, 종일제 보육을 A시설에서 받고, B시설로 옮겨 시간 연장보육을 받는 경우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 연장 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으며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능하다. 한편 시간 연장 보육 이용 아동을 포함하여 보육 시설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아동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1일 1,000원 한도내에서 석식비를 수납해야 한다.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단가를 살펴보

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소득하위 50%	2,400	144,000	기준액 × 100%
소득하위 60%	1,400	86,400	기준액 × 60%
소득하위 70%	720	43,200	기준액 × 30%

<자료출처: 2010년 보육사업 안내>

2) 보조금 지원 기준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정부지원시설의 시간 연장 보육교사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시간 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가능)하며 민간보육시설은 시간 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1인에 대하여 지원한다.

한편,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 연장 보육할 경우 시간 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지만 19시 30분 이후까지 시간 연장 보육아동을 3명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며, 시간 연장 보육교사가 21시 이후까지 1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간 연장 보육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유아로만 편성되는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지만 시간 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5명을 초과할 수 없다(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보육사업 안내).

<표 4> 시간 연장 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분	시간 연장 보육시설
보육시간	기준 보육시간 (07:30~19:30)을 경과하여 21:00 이후까지 보육
보육교사 지원기준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장애아, 0세아는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용 유아로만 편성되는 경우 1:7까지 조정 가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직장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급액의 80% 지원 민간지정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3) 외국의 시간 연장 보육 실태

시간 연장형 보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야간과 연장 보육을 담당하는 베이비 호텔과 이스라엘의 키브츠 교육으로 공동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숙 보육 프로그램으로 ‘바-위-위엔(bao-yu-yuan)’이 있다.

일본의 보육제도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많은 발전을 보였다. 1947년 탁아소에서 보육소로 개칭하고, 1980년초에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허가제로 1989년에는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구축되어 나갔다.(조숙경, 2001).

일본인들은 과거나 현재 모두 어머니에 의한 양육을 타인에 의한 양육보다 더 나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등으로 아동보육체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갖게 되었다. 특히 최근 10년간 계속되는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보육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1995년 세워진 엔젤플랜(ANGEL PLAN)은 후생성, 문부성, 노동성, 건설성과 같은 관계처가 협력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사회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정책이다.

인가 받지 않은 야간 및 24시간 보육 시설인 베이비호텔은 1960년대에 큰 도시의 호텔 내에 있는 시설들로 원래는 호텔 손님들의 자녀들을 짧은 시간 동안 보살펴주는 형태였다. 후생성은 베이비호텔을 첫째, 24시간 운영, 둘째, 밤샘 양육을 제공함, 셋째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베이비호텔은 흔히 영아양육에 이용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 시설들은 낮은 질적 수준 때문에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 있는 시간의 밤샘 보육, 6개월 이하의 영아들을 위한 보육을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 받은 아동보육시설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켜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인가 받지 않은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에서 몇차례 화재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인가제로 바꾸었다. 엔젤플랜에 의해 일본은 잔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근무실태를 반영하여 연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을 오후 6시부터 2시간, 4시간, 6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사업을 실시한다. 이 시설의 야간보육 대상은 대부분 밤일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스라엘의 키브츠 교육은 출생부터 이루어지는데 생후 4일째 되는 날 신

생아는 키브츠의 공동육아원으로 보내져서 공동생활을 통한 집단교육체제에 들어가게 된다(송미연, 2002). 보육원에서의 공동생활은 전문적인 교육과 정식 훈련을 이수한 키브츠 출신 여성인 보모에 의하여 보살펴진다. 영아들은 이곳에서 만 1살까지 생활한다. 영아의 어머니는 하루에 5~6회정도 보육원으로 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데 소요시간 1회에 50분내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영아가 한 살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 탁아소로 옮기게 된다.

또한 반일제로 운영되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오후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요구하여 오후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기능을 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 모델이 개발되었다. 그 하나는 오전에 영유아를 맡은 교사들이 오후까지 계속 맡거나 다른 교사가 교대하여 맡아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전 프로그램이 끝난 후 버스를 타고 가까운 지역사회센터로 이동하여 여성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오후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취학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유아원과 유치원의 많은 수가 보육시설과 지역사회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고, 반일제로 운영하는 시설들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오후 시간까지 연장하여 보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양옥승외 1998)

중국은 기숙 보육 프로그램으로 ‘바-위-위엔((bao-yu-yuan)’이 있다. 중국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의 5%는 기숙 학생이다. 기숙 보육프로그램은 시골보다 도시에서 훨씬 보편적이다. 이러한 기숙 보육 프로그램은 4세이상 유아들 뿐 아니라 영아와 걸음마 아기를 위한 기숙 보육 프로그램도 있다. 중국의 기숙 보육 프로그램은 문화 혁명기 동안 인민 자유군 병사들의 자녀, 당 지도자의 자녀, 특별한 재교육 혹은 작업이 할당된 도시 부모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숙 보육 프로그램은 당지도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 이외에 야간작업을 하거나 저녁에 어린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의 자녀에게까지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양옥승 외,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시간 연장형 보육은 산업구조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사정에 대응하여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와 더불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시간 연장형 보육이 키브츠 공동체 보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키브츠 특유의 집단공동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육형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간 연장형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모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같이 협력하여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제, 출산휴가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진정한 영유아를 위한 보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역할 및 직무환경

1)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역할

보육교사는 보육아동을 위해 보호와 교육을 모두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력이다. 특히 영유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민감한 시기이며, 그 중에서도 일차적 인적환경으로서의 보육교사는 매우 결정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시간 연장 교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간 연장 보육교사는 전 연령을 혼합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자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육교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과 자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자질과 더불어 시간 연장 보육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황윤경 2008, 재인용).

첫째, 대리양육자로서 안정 애착과 정서발달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영유아에게 보육교사는 부모의 대리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보육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쉬운 영유아들의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일은 이후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원동력이 된다.

둘째, 놀이에 참여시키고 놀이에 촉진시키는 역할, 즉 환경제공자, 상호작용자,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영유아에게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계획하여 제공하는 환경제공자와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영유아들에게 놀이는 세상을 배워가는 방법이다. 놀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 교사는 영유아가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시간 연장 보육실을 구성해주고, 영유아의 수준에 맞는 적정수의 놀잇감을 준비한다. 영유아가 피로한 저녁시간임을 고려하여 영유아와 잦은 상호작용을 하기 보다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모델을 보여주거나 개입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지속되고 촉진 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셋째, 기본습관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손 씻기, 양치질, 바람직한 식습관 등과 같은 청결습관에서부터 인사하기, 정리정돈하기, 차례 지키기, 적절하게 도움청하기 등 규칙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까지 유아기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관찰자 및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영유아의 건강 및 심리상태, 놀이행동이 평소보다 다른 점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영유아를 평가하고 보육계획 및 활동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다섯째, 하루의 대부분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일과운영을 해야 하며 일관성과 융통성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여섯째, 장시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직무환경

보육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근무환경이란 보수 이외의 담당시간, 교사와 유아의 비율, 개인시간 확보량 등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 환기, 소음, 채광, 온도, 공간 배열 등 물리적 환경이 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직접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을 이르기 까지 중요하다. 하지만 보육시설의 경우 시간 연장 보육교사들의 휴식 공간이 별도로 구성된 곳은 매우 드물고, 교사실이 별도로 갖지 않는 곳도 많으며, 교사용 책상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장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경우 휴식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로 한명의 교사가 시간 연장반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사들이 따로 휴식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안성화, 2008). 그러므로 우수한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보수 조건, 복무조건, 신분보장, 후생복지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즉 어떤 직업에 있어서나 효과와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직업에 알맞은 근무조건을 정비할 필요조건으로 해야 한다(이지원,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 인간관계, 후생복지, 사회적 인정, 보수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육교사의 직무

직무만족은 교사의 직무의욕과 학습지도에 성실함과 적성에 대한 만족을 말하는 것으로 근무의 보람, 근무성적 등을 말한다. 또한 직무가 본질적인 즐거움을 주는 정도와 인식, 창조성, 기술형성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송유진, 1993).

Mumford(1972)은 직무의 요인으로 물리적 다양성, 기술의 다양성, 목표의 구조, 업무 동일시를 포함시켰으며, Kaha(1981)은 개인들이 그들 각자의 역할들에 대해 정의와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인으로서 도전성과 자율성의 요소를 지적하였다. 도전성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들의 훈련과 타고난 능력을 직무에 조화시키는 정도를 말하며, 자율성은 교사들이 하는 일과시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에게 주어진 통제의 정도를 포함시킨다(박희진, 2009: 8). 교사들이 직무에 대해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인간 상호간에 일어나는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만족을 얻으면서 협동할 수 있도록 직장의 환경과 분위기를 조작함으로써 전체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향상시켜 행정 및 경영의 능률화를 도모하는 관리 수단이다(장현진, 2009 : 27).

보육시설의 시설장, 동료교사,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의 인간관계적 구성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직무에서의 욕구불만, 갈등, 정서적 혼란 등으로 인해 직무

능력이 저하되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시설장은 모든 교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믿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직무 만족을 높이는 좋은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보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료교사는 어려움을 같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생활해 가는 관계로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며, 교사와 학부모는 복합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 간에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3) 후생복지

복지란 “안정된 생활”이라든지 “생활욕구의 충족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교사의 복지후생은 보육교사가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후생복지란 적극적인 업무 수행촉진을 위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보수이외의 부가적 편익을 제공하는 간접보상이다. 후생복지는 고용주와 파고용인 쌍방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업무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수부분에서 커버할 수 없는 다양한 복지방식으로 동기부여에 의한 직무만족·직무몰입 과정에서 심리적 연구를 채워주는 특징을 가진다. 쌍방 간 협의된 업무적 보상인 후생복지는 종사자들을 위한 각종 휴게시설,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 공제회 제도 및 건강지도, 사회보험제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이지원, 2010).

(4) 사회적 인정

사회적 인정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이 내·외부로부터 타인과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서열 또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개인의 사고와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김혜성, 2001).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 되어야 하며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보육교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주 낮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처우 등이 소홀해서 오는 사회적인 인식은 교사 스스로가 가지는 열등감, 불안과 함께 직무만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5) 보수

보수는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체제에 대하여 보육교사가 만족하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정규 급여를 의미한다. 각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떠한 직종에 있어서든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능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보수에 대한 욕구는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중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며, 이 욕구가 만족되어야 그 다음 욕구들이 만족되며 마침내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이명주,

1984). 즉 교사가 자신과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할 때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교사에게 윤리성과 성실성 그리고 능력이나 직무수행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박광현, 2002). 그러므로 보육교사에게 자신의 직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가 주어져야 직무만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 연구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주간시설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육시설, 보육정책,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야간 및 24시간 보육에 대한 교사나 시설장의 인식, 학부모의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시간 연장 관련 연구 중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필요성 및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하정희 2001; 조숙경, 2002; 이미경, 2004)이 있으며, 이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정희(2001)는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 기혼 여성들의 애로점인 자녀 양육을 위해 야간 및 24시간 보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조숙경(2002)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야간 및 24시간 보육사업의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들은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확충을 요청하였으나 시설의 부족으로 아동들의 입소의 어려움과 보육료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운영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융통성 있는 조정, 보육료 단가와 지원단가의 재조정, 효율적 보육과정 구성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미경, 2004)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 가족해체의 증가,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과생되는 또 다른 주말 직업군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문제는 더더욱 시급해 질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만 재정적 어려움 없이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가정 보육 시설의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연구(이미경, 2004)에

서는 가정보육 시설이 시간 연장형 전체시설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보육시설장은 관리자의 역할을 포함하여 취사부, 보육교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시설장의 피로과중과 교사수급 문제, 인건비, 운영비 부족 등을 들었다. 이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종사자 인식과 운영현황(조희숙, 2004)에 의하면 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한 부모 가정의 지원, 다양한 근로 형태의 직업을 가진 부모를 위해서 시간 연장 보육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시설 인식에 대해 연구한 최수경(2002)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교사와 어머니 모두 3~5명이 적당하며, 교사와 어머니 모두 영양·건강·안전관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시간 연장 관련 인식 조사 중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중점을 둔 (송미연, 2002; 안성화, 2008) 연구들을 살펴보면 송미연(2002)은 “24시간 어린이집 야간보육교사의 근무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식(3.95)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2.67)로 가장 불만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성화(2007)은 시간 연장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직무만족도를 일반 보육교사와 차이를 파악한 연구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일반 보육교사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일반보육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원인은 시간 연장 보육 일과운영의 교수자료부족, 저녁식사 설거지, 출퇴근시간, 원만치 않은 동료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력을 보수기준에 반영하거나 적어도 2인 이상의 시간 연장 보육교사가 함께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

연장 보육 일과 운영의 내용 개발과 야간 취사부를 배치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교사들과 학부모 대상으로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와 개선방안에 중점을 둔 실태조사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설 설비 부족, 프로그램 부재,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기관

본 연구를 위하여 국공립, 민간, 직장, 보육시설 등 시간 연장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 대상 교사들은 모두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전담 교사 경력이 평균 2년 정도 있는 분으로 선정하였다.

1)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담론분석이 주된 연구방법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해 관심과 열의가 있는 교사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어느 정도의 현장 경험이 쌓이고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교사일 경우 본 연구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pring(1998)에 의하면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이 연구의 출발 및 진행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 역시 연구 주제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연구가 더욱 협력적으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연구 대상자의 관심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에서 주변 분들 도움으로 알게 된 교사1명과 대학동기와 같이 근무 하고 있는 교사2명으로 선정하였다.

2) 시간 연장 보육시설 참여 기관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연구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을 선택하고자 하였다(Mason, 1996).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방법이 타당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다른 세 곳(A어린이집, B어린이집, K어린이집)의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① A어린이집

서울시 M구에 소재하고 있는 A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1992년 9월에 개원하여 현재 183명의 영유아들을 14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A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서 낮은 주택가로 높은 언덕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었다. 생활수준이 낮고 맞벌이 부모가 많은 편이라 2009년 3월부터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하여 2010년 4월 현재 영유아 14명과 교사 2명으로 운영 하고 있다. A어린이집 경우 주간 보육의 경우 만 0~5세까지 운영하지만 시간 연장의 보육을 이용 할 수 있는 아동의 대상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였다. 시간 연장 보육실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집 2층 만 4세반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5> A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하루일과

시간	보육프로그램
저녁 7 : 00 ~ 7 : 10	통합 및 일과 소개
7 : 10 ~ 8 : 00	저녁식사/ 식사 후 정돈 및 양치하기
8 : 00 ~ 8 : 40	또래놀이/신체놀이
8 : 40 ~ 9 : 50	자유선택놀이 및 정리정돈
9 : 50 ~ 10 : 00	귀가준비 및 지도

② B어린이집

경기도 G시 G동에 소재하고 있는 B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1992년에 개원하여 현재 49명의 영유아들을 4명의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시간 연장 보육은 2008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며 5명의 시간 연장 아동교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B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좁고 낡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시간 연장반 보육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편부, 편모 등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B어린이집도 A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시간 연장 보육실이 어린이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출입문과 가까운 만 3세반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6> B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하루일과

시간	보육프로그램
저녁 7:30 ~ 7:40	통합 및 일과 소개
7:40 ~ 8:30	저녁식사 및 양치하기
8:30 ~ 8:40	몸 놀이
8:40 ~ 9:00	또래놀이
9:00 ~ 9:50	자유선택놀이 및 정리정돈
9:50 ~ 10:00	귀가준비 및 귀가준비

③ K어린이집

서울시 Y구에 소재하고 있는 K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으로 1995년에 개원하여 시설개선으로 90명으로 운영되던 어린이집의 정원이 최대130명까지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증설되었다. 보육교사 13명이 130명의 영유아들을 담당하여 보육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의 대부분은 생활수준은 중산층이지만 부모님의 근무 여건 상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아이들이 많아 2008년부터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하였다. K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시간 연장 보육실이 어린이집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출입문과 가까운 만 1세 영아반 교실에 운영하고 있다.

<표 7> K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하루일과

시간	보육프로그램
저녁 7 : 11 ~ 7 : 30	통합 및 일과소개
7 : 30 ~ 8 : 20	저녁 및 양치질하기
8 : 20 ~ 8 : 40	또래놀이
8 : 40 ~ 9 : 40	자유선택활동
9 : 40 ~ 10 : 00	귀가준비 및 귀가지도

3) 교사 현황

문화기술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 중 정보제공자들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있다(Spradley, 2006)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본명 대신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 및 개인적인 내용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① A어린이집 H교사

시간 연장 담당 H교사는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보육교사 양성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편입하여 현재 3학년으로 진학 하고 있다. 예전 어린이집에서 4년 근무한 후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 위탁 구립 어린이집 시간 연장 담당 교사로 현재 2년째 근무하고 있는 경력 6년차의 교사이다.

H교사는 평일 오후 1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 까지 어린이집 사무일을 보

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다른 시간 연장 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보육 하고 있다. 급여는 정부 지침에 의거한 주간 보육교사와 동일한 급여체제로 받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도 별도로 받고 있어서 급여 및 근무여건 등 어려움은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② B어린이집 S교사

시간 연장 담당 S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에서 7년 정도 근무한 후 작년 Y 어린이집 입사해 현재 경력 9년차의 교사이다.

B어린이집 교사는 오후 2시에 출근하여 9시 30분에 퇴근하였으며, 어린이집에 출근해서는 영아반 아이들을 돌보거나 각 반 담임교사가 차량 운행 시 교실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급여는 정부에서 민간지정시설에 지원하는 100만원과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지급 받았으며, S교사는 기혼이어서 오전에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 근무 할 수 있어서 근무 상 애로점은 없다고 언급했다.

③ K어린이집 K교사

시간 연장 담당 K교사는 4년제 가정학과에서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 한 후 2007년 서울에 성북구에 소재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경력을 쌓은 후 2009년부터 서울시 Y구에 소재한 K직장 보육시설 시간 연장 교사로 현재 2년째 근무 하고 있다. K교사는 평일 오후 1시에 출근하여 저녁 10시 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어린이집 사무일 및 교재교구 및 비품 관리를 하고 있고 아이들의 견학 또는 소풍, 행사가 있을 때에는 오전부터 나와서 근무하고 있다. 주간 선생님의 급여는 호봉에 따른 급여, 시간외 수당, 교사 연구비가 별도로 지급되지만 시간 연장 교사는 정부

지침에 의거한 주간 보육교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받고 있었다.

<표 8> 교사들의 일반적인 배경과 시간 연장 어린이집 유형

	연령	학력	경력	설립유형	유아구성
H교사	29	4년제 졸	6년	국공립	혼합연령
S교사	38	3년제 졸	7년	민간	혼합연령
K교사	30	4년제 졸	4년	직장보육	혼합연령

2. 연구 절차

1) 예비 연구

예비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중 2곳을 선정하여 2010년 3월 15일, 2010년 3월 22일 총 2회의 교사 개별면담을 가졌다. 개별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주간 교실을 사용함으로써 교사와 아이들은 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주간 교사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보람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서로 다른 보육시설이지만 공통된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보아 본 연구를 확장시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를 위하여 2010년 4월 5일 부터 2010년 8월 27일 까지 약 4개월 기간 동안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총 6회의 참여관찰과 24회 교사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문서 수집, 사진촬영 등 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와 직무 수행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의견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사적인 대화로 흐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교사 개별 면담, 문서 수집,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 관찰

본 연구는 시간 연장반 담당교사의 직무에 대한 담론분석으로 세 곳의 보육시설의 사전 동의를 얻고 2010년 4월 19일부터 2010년 5월 20일 까지 이루어 졌다. 연구 대상자들의 교육 신념, 교육 가치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보육시설 근무 생활 전반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 연장 근무가 끝나는 시간까지 참여 관찰 하였다. Spradley(2006)가 제시한 참여관찰자는 내부자인 동시에 외부자로서 자기성찰을 통해 일상적 경험에서 새롭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객관적 성찰과 주관적 감정 모두를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보육시설에 등원하여 연구대상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 형태의 참여관찰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간 연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 연장 교실을 구석구석 관찰하였고 관찰한 내용은 현장 기록 노트 (Field notes)에 전사하여 저장하였고, 전반적인 느낌이나 의문점 등을 메모 창에 기록해 두었다가 다시 상기해 보며 시간 연장 보육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나. 교사 면담

면담은 보육시설 3곳의 시간 연장 담당 교사 대상으로 형식적인 면담과 비형식적인 면담으로 총 24회로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소요되었으며, 면담이 끝난 후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메일이나 전화 면담을 통해 활용하였다. 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시간 연장 보육담당 교사로 근무하게 된 동기와 보람,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려움점과 개선해야할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면담 시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Bogdan과 BliKen(1982)이 제시한 것처럼 주의 깊게 듣고 명료화 하고 연구 대상자의 생각을 절대 평가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다. 문서 수집

연구 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간 교육계획안, 월간·주간 교육계획안,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하루 일과표, 가정통신문, 운영 안내문 등의 시간 연장과 관련된 문서들을 수집하였고, 연구주제와 관련지어 내용 분석을 참조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라. 사진 촬영 및 녹음기

교사 동의하에 시간 연장 교사들의 직무에 대해 총 6회 사진 촬영하여 참고하였으며, 연구자와 시간 연장 교사와 담론을 통해 이루어진 내용을 녹음기를 사용하여 자료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이란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자에 의해 내용을 일련의 질서, 체계 그리고 의미 있게 정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질적 연구는 오랜 시간을 끝수록 연구자의 관점이 흐려지고 미결된 부분을 해결하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에 대한 분석을 위해 녹음된 자료를 듣고 전사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느낌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현장 노트를 작성해 나갔다.

Bogdan & Biklen(2006)의 지침에 따라 현장 노트와 면담 전사본을 읽어 나가면서 특정 사례, 단어, 어휘 등을 통해 규칙성을 발견하며 줄을 긋고 추후 분석을 위해 표시를 하면서 연구문제에 따라 주제별로 접근하는 작업을 하였다.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연구문제에 따라 시간 연장 보육 시설의 운영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시간 연장 보육담당 교사로 근무하게 된 동기와 보람,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려운점과 개선해야할점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범주는 다시 몇 개의 하위 범주들로 구분하였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다른 것으로 타당도 작업에 대한 학자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그에 다른 타당도 작업을 실시하였다. Wolcott(정은경, 1999 재인용)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이란 사실의 발견이나 궁극적인 대답을 추구하기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좀 더 풍부한 해석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각측정법(Merriam), 구성원검토(member), 동료연구자에 의한 비평(Peer debriefing)의 초점을 두어 신뢰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삼각측정법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직무에 대해 관찰하고 기술하고 해석하는데 오류를 줄이고자 참여관찰, 교사면담, 사진촬영, 문서 수집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2) 구성원검토

연구 참여자인 시간 연장 담당 보육교사에게 초기에는 현장 기록노트와 면담 내용의 일부를 확인 한 후 범주와 해석, 설명 등 검토를 거침으로서 자료의 의미와 분석에 대해 왜곡을 피하고자 하였다.

3) 동료연구자에 의한 비평

유아교육기관에서 6년 이상의 현장 경력과 대학원 유아교육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동료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인 외부자에게도 자료 분석과정을 보여주고 검사를 받는 절차를 통해 연구자의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견해를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시간 연장 담당 보육교사들의 직무에 대해 참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상황과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해 본 결과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로 근무하게 된 동기와 보람 그리고 직무수행과정 시 어려운 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범주화 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1) 맞벌이 가정에 대한 행복한 지원

시간 연장 지정 보육시설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학부모의 요구와 행정기관의 권유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급증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 및 근무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보육시설 운영 시간만으로는 양육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지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되어 교사와 학부모님들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현대사회의 여성 참여 확대 및 가족구조의 변화된 가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또한 K교사는 가정해체로 인해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기엔 힘든 상황이었지만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있어 한 부모 가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H 교사: 저희 원의 경우 시간 연장반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맞벌이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중에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한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어요.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 인 것 같아요.

(참여관찰 2010, 4.5)

R 교사: 시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이라서 부모님들이 우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근무하기에 마음 놓일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때론 늦게 퇴근할 때도 있을텐데 늦은 시간 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참여관찰 2010, 4, 27)

S 교사: 저는 결혼 전에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는 다른 보육시설에 맡기고 저는 예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는데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하게 되니깐 원장님과 다른 동료 교사분들께 너무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 하고 나서는 어머님들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모님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 인 것 같아요.

(참여관찰 2010, 5, 17)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어 학부모님들께는 아주 유용한 보육시설임을 도출 할 수 있었다.

2) 가정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가 최고!

교사들은 시간 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인지적인 학습보다는 가정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랜 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동들에게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포근히 안아주는 스킨십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H 교사: 시간 연장반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정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주간교실은 아이들이 많다보니 규칙과 질서가 있어 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시간 연장반의 경우 아이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정과 같이 편안하게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관찰 2010. 4. 16)

S 교사: 사람은 누구나 관심 받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오랜 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스킨십은 아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10. 5. 28)

한편 K교사는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 있다 보면 아동들이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휴식 공간을 기존보다 넓게 하여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K 교사: 아이들 경우 9시가 넘어가면 피곤하고 지쳐보여요,

교실에 휴식 공간이 있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 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관찰 2010. 5. 7)

3) 부모는 웃지만 아이들은 운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애정 결핍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애정결핍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 보다 아동에게 훨씬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H 교사: 아바랑 아이랑 매일 같이 등원하는 4살 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요, 3월 초부터 거의 5월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내내 시간 연장 보육을 했어요, 나중에는 몸도 지쳤는지 아이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퇴원을 한 후 어린이집에 잘 오던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기 싫다며 울고 떼를 쓰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나봐요,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인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10. 5. 31)

또한 K교사는 오랜 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동들의 경우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고 산만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다음에서 살펴 볼 수 있다.

K 교사: 오랜 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동들의 대부분 불안정하고 산만하고 큰 연령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퇴행하는 아이들을 보면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힘드시더라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10. 5. 26)

한편, 몇몇 일부 가정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기준 시간을 경과하여 귀가 하는 아동들이 있었고, 주간 보육과 야간 보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시간 연장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아동들의 저녁을 먹기 위해 시간 연장반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며 S교사가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은 아동들의 입장 보다는 부모개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본 취지에 맞게 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S 교사: 부모님들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세요, 시간 연장 보육시간을 경과해서 술을 잔뜩 취해서 걸음도 비틀비틀 오시는 학부모님도 계셨는데 아이에게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부모님도 계셔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입장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별면담 2010. 5. 28)

시간 연장 담당 교사들은 시간 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해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님과의 개별적인 면담이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으며,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과연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취지로 다가 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시하였다.

2.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로 근무하게 된 동기와 보람은 어떠한가?

1) 시간 연장 교사로서 근무하게 된 동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동기의 지배를 받는다. 개인에 따라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양영아, 2005).

이에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 연장 담당 교사로 하게 된 동기는 각자마다 달랐다. 기혼인 교사들의 경우 주간에 가사 및 육아일을 할 수 있어서 시간 연장 교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미혼인 교사들은 주간에 자신의 취미 생활 및 자신의 학업 때문에 시간 연장 교사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H 교사: 작년에 방통대 유아교육과를 편입을 했어요, 주간 교사들의 경우 업무량이 많아서 학업을 하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10. 6. 14)

K 교사: 주간 교사 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면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서 오전이라도 제 취미 생활과 휴식을 갖기 위해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개별면담 2010. 6. 4)

S 교사: 결혼을 하고 집안일과 육아일을 함에 있어 오전부터 근무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을 했는데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의 권유로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개별면담 2010. 6. 14)

2) 시간 연장 교사로서 근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보람

(1)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의 즐거움

시간 연장반을 담당하면서 교사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행복과 보람을 느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특히 보육시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 않으면 이 일을 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새 학기 때보다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과 교사가 힘이 들 때 아이들이 위로가 되고,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 연장 담당 교사 각자 마다 다양한 애환들 가운데 시간 연장 교사로서 직무수행과정 시 느꼈던 보람에 대한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 교사: 아이가 귀가할 때 어머니께 달려가면서 지금 미술 활동을 했는데 재미도 있었고, 선생님이 담임선생님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개별면담 2010. 6. 28)

K 교사: 영아반 아이들의 경우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 처음에 시간 연장반을 할 때 울고 떼쓰고 해서 아이도 힘들고 또 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놓고 직장에 가시는 학부모님께서도 마음 아파 하셨는데 지금은 적응도 잘하고 저녁식사도 맛있게 잘 먹어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하루 하루 커 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개별면담 2010. 6. 30)

S 교사: 근무하면서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역시 아이들 인 것 같아요. 제가 근무 하면서 힘이 들 때 아이들이 옆에서 재롱도 부리고 위로도 해주면 가장 힘이 돼요.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면담 2010. 6. 18)

(2)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인사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시간 연장 담당 교사들은 보람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한 면담은 다음과 같다.

H 교사: 저를 믿고 마음 편하게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저야말로 부모님들께 감사드려요.

(개별면담 2010. 7. 12)

K 교사: 작년 어린이집 졸업식 때 시간 연장반을 이용하던 아이와 어머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정말 감사드렸다고 잘 지내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학부모님의 감사는 교사로서 근무하는데 가장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10. 7. 14)

S 교사: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가게를 하셔서 그날따라 거의 10시 넘어서 어린이집에 오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선생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

다며 인사를 깎듯이 하셨는데 제가 몸둘바 몰랐어요, 비록 제 퇴근시간은 늦었지만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죠.

(개별면담 2010. 7. 2)

3.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1) 시간 연장 아동 및 교사를 위한 공간 부족

연구 참여자의 시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 3곳을 관찰한 결과 3곳 모두 시간 연장 보육 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3곳의 보육시설의 경우 주간 교실을 활용한 공간의 일부를 시간 연장반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간 연장을 이용하는 유아와 교사 그리고 주간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시간 연장 교사는 자신의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을 사용함으로써 아동 발달에 맞는 교재교구 배치와 환경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H 교사는 보육시설의 보육 공간의 부족으로 주간교실을 사용할 때 아이들이 교구나 장난감이 섞이거나 정리정돈이 안될 경우 주간 선생님께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정리정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시간 연장 교사들은 아동들이 교구 사용 시 주의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H 교사: 저는 시간 연장반 교실이 어린이집에 꼭 마련되었으면 해요, 주간 교실을 사용하다보니 정리가 덜 되거나 장난감이 섞일 때 주간 선생님이 안 좋아 하실까봐 교실 정리는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구를 사용할 때 항상 주의를 주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와 열

굴 불히면 안 좋잖아요.

(참여관찰 2010. 4. 5)

이외에도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간 보육실을 이용함으로써 시간 연장 아동들이 생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었으며, 아동이 프로그램 활동 시 결과물에 대한 전시, 개인 컵, 개인 칫솔 등의 개인물품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남는다고 하였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R 교사: 아이들이 활동한 결과물을 전시하고 싶은데 그만큼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아쉬움이 남아요, 자신들이 활동한 것을 친구나 부모님이 보시면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좋잖아요.

(참여관찰 2010. 4. 27)

S 교사: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이를 닦을 때는 각자 자기 반에 가서 칫솔과 치약을 가져 와서 이를 닦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 경우 바지에 소변을 했을 경우 아이의 교실에 가서 옷을 찾는데 옷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고 있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참여관찰 2010. 4. 17)

2) 영 · 유아 통합보육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의 대상 아동은 3~7세로 구성 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아동은 7세, 가장 적은 아동은 3세로 영유아간의 최고 4년의 연령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업 및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아동의 귀가 시간이 일정치 않고 불규칙적이라서 활동을 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한편 연령의 차이로 인해 아이들과의 잦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연령이 아동이 어린 연령의 아동을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H 교사: 저희 원은 교사 2명에 아동 수 14명이 시간 연장반에 모여 있어요, 교사 2명의 체제로 운영되지만 영·유아 14명 통합으로 운영하기는 조금은 벅차네요,

(개별면담 2010. 7. 26)

R 교사: 연령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아반 아이들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님 스티커 붙이기나 찌기 등의 간단한 수준으로 수업을 참여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높은 연령의 아동들은 영아들보다는 심화되고 확장된 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다보면 선생님이 바쁘거나 아이들 귀가 시킬 때 큰 연령의 아이들이 어린 연령 아이들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때도 있어요,

(개별면담 2010. 7. 21)

S 교사: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부모님이 오시면 수업의 흐름이 깨지고 아이들의 분위기가 산만해 지는 경우가 있어요, 큰 연령과 어린 연령이 같이 있다 보면 잦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서 통합보육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개별면담 2010. 7. 16)

다시 말해 시간 연장 교사들은 통합보육에 대해 영유아들의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 나이 많은 영유아들이 어린 영유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발달수준의 차이가 나는 영유아들에게 개별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고, 큰 연령과 어린 연령이 한 교실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마찰이 일

어날 때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시간 연장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의 어려움

시간 연장 교사들과 면담한 결과, 3곳의 보육시설의 경우 서울시 보육정보 센터에서 제공하는 연간, 월간, 주간계획안을 참고하여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간 연장 교사들은 아이들이 되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간 보육에 비해 참고 할 서적이거나 자료가 부족하였고, 시간 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연령 구성의 어려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아동들마다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아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아이들이 장시간 보육시설에 있다 보니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 수업진행에 맥이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H교사는 통합보육으로 인해 아동들의 연령 및 발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별 차이를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H 교사: 저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자료를 참고 하거나 유아 잡지를 통해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어요. 이번 년도는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나 지금은 주제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프로젝트 수업은 하고 싶지만 아이 들의 연령 차이가 나서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주로 아이들의 신체놀이와 게임 활동 등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개별면담 2010. 8. 9)

R 교사: 주간 보육 같은 경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은데 이에 시간 연장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부족해요.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 시 교사 혼자 아이들을 귀가 하고 수업을 가르치는데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개별면담 2010. 8. 11)

한편, S교사는 야간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때 주간에 배운 주제와 내용이 겹칠 때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획 시 주간 교사와 의논하여 시간 연장반의 교육 특색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제시하였다.

S 교사: 각 반에 이루어지는 주제랑 시간 연장반에서 이루어지는 주제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름 같은 주제의 경우는 선생님 저 우리반에서 배웠어요 하는데 아이들의 흥미가 없을 때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힘이 썩 빠지죠.

(개별면담 2010. 8. 13)

4) 교사로서 소속감 없는 나

교사들은 자신의 직무과정 속에서 교사로서의 소속감이 없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시간 연장 담당교사들은 오후 1~2시에 출근하여 주간 교사와 퇴근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동료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시간 연장 교사들은 출근하면 주간 교사께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고 인사를 다 마친 후 자신의 업무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한 주간교사들은 시간 연장 담당 교사의 주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 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쉬운 일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교사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자신도 보육시설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회

의 및 기타 일들은 주로 오후에 있어 참여 하지 못하고 주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자신의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소속감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H 교사: 시간 연장 교사는 주간교사들보다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주간 교사와 친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먼저 교실로 가서 선생님들께 먼저 인사 하고, 선생님 뭐 도와드릴 것 없나요? 먼저 물어 보고 아이들도 돌보아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도 교사인데 왜 이래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시간 연장 담당 파트너 선생님이 계셔서 저 혼자 할 때 보다 정말 많이 의지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개별면담 2010. 5. 31)

K 교사: 같이 일하는 주간교사들은 시간 연장 교사의 일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시간 연장 담당교사는 주간교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지 않는다고 편해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지 주간 선생님께서는 어린이집 기타 업무나 일이 있으면 당연히 부탁하는 일이 있을 때 참 황당하죠,

(개별면담 2010. 5. 26)

S 교사: 근무하면서 교사 회의에 거의 참여 한 적이 없어요, 회의는 주로 평일 낮 오후 시간에 이루어 지는데 저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라 교사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보니 다른 주간 선생님들께 회의 내용을 들을 때는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주간 선생님들은 여러 명이고 오랜 시간 근무 하다 보면 동료애도 생기지만 저는 항상 혼자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소속감을 잃어 버릴 때가 있어요,

(개별면담 2010. 5. 28)

면담한 교사들은 보육시설에서 시간 연장 담당 교사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 동료관계가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은 어떠한가?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시간 연장 담당 교사의 근무수당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대체교사 활용, 다양한 시간 연장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교재교구비 지원,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 시간 연장 교사 2인 이상 의무적 배치, 시간 연장반을 위한 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아동들의 영양가 있는 저녁식사를 위한 취사부 배치 등으로 조직화 하였다.

1) 시간 연장 담당 교사의 근무수당 및 시간외 수당 지원

시간 연장 담당 보육교사들과 면담한 결과, 주간 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주간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3곳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인 경우 급여이외에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직장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인 경우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K교사와 S교사는 보육시설의 행사 및 견학이 있을 경우 오전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까지 남아 장시간 근무로 인해 피로가 쌓인다고도 이야기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간 연장 교사들을 위한 근무 수당 30만원이 별도로 지급 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

되어 교사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시간 연장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K교사: 주간교사는 월급이외에 교사 연구비와 시간 외 수당 등 지급 되지만 저는 월급 이외에 시간 외 수당이 없어요, 때로는 어린이집 업무일이나 아님 아이들 수업 준비 때문에 늦게 퇴근하여도 수당이 없을 땐 조금은 섭섭할 때도 있어요.

(개별면담 2010. 8. 17)

S 교사: 아이들의 소풍이나 견학이 있을 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까지 거의 10시간 넘게 아이들을 보육을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원의 경우는 월급 이외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워요, 다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간 연장 교사들을 위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 되었으면 해요.

(개별면담 2010. 8. 20)

2) 대체교사제도 활용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을 위해 2009년부터 각 지역의 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주간 보육교사들에게만 활용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시간 연장 교사들은 여름휴가나 연월차 활용 시 주간 교사와 학부모의 협조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간 연장 교사들을 위해 대체 교사제도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H 교사: 작년에는 주간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특별히 양해를 구해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주간 교사 분들께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휴가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개별면담 2010. 7. 26)

R 교사: 여름철이 다가오면 교사들은 휴가를 가잖아요. 주간교사의 경우는 휴가 가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갈 때 미리 2달전에 사전에 원장님과 동료 교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가요. 제가 휴가를 가면 다른 주간 선생님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일하는 거라 너무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요.

(개별면담 2010. 7. 21)

S 교사: 주간교사의 경우 대체 교사 제도를 이용하여 교사 자신의 휴식도 취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 비해 시간 연장교사인 경우 대체 교사 제도가 없어서 여름 휴가이외에는 월차는 엄두도 못 내죠. 앞으로 시간 연장 교사에게도 대체교사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별면담 2010. 8. 13)

3곳의 보육시설의 면담 결과 여름휴가나 연월차 활용 시 주간 교사들과 학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지내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고, 신경이 쓰인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시간 연장 교사도 주간 교사들 처럼 대체교사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 휴가 및 연월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다양한 시간 연장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교사들은 현재 시간 연장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보급되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면담한 교사들의 보육시설은 서울시 보육정보 센터에서 제공되는 시간 연장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계획 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이론과 실체가 조화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영유아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초점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개발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 있다 보니 아동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체 활동 또는 저녁시간에 10~20분 잠깐 바깥 나들이를 통해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H 교사: 저녁을 먹고 휴식 시간을 갖고 7시 30분부터 시간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녁 시간되면 지치고 주의 집중 시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긴장감 완화 시키기 위해 또래놀이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또래 놀이는 주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별면담 2010. 8. 9)

S 교사: 아이들의 경우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 있다 보니 답답한 것 같아서 잠깐이라도 나들이를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실외 놀이터에 나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 연장 아이들을 위해 실외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해요,

(개별면담 2010. 8. 13)

한편, k교사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주간 교육과는 다른 일과를 계획하여 융통성 있게 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㉔ 교사: 아이들이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게 되면 심심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주간 교육과는 다른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면 해요, 교사들의 대부분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서 융통성 있게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운영되었으면 해요.

(개별면담 2010. 8. 11)

4) 시간 연장 아동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

정부에서는 1년에 1회 아동들을 위해 교재교구비가 지원해주지만 주로 주간 아동들을 위해 교재교구가 사용되기 때문에 시간 연장 아동들을 위한 교재교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주간 보육실의 경우 단일 연령으로 교구들이 배치되어 있어 영아들의 경우 놀잇감이 맞지 않아 교구를 입에 넣는 일이 발생되어서 영아반 교실에서 놀잇감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혼합연령으로 인해 아동들이 선호하는 놀잇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놀잇감을 보육시설에 비치하여 아동들이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K교사는 시간 연장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비를 쓰는 것 보다는 아이들의 교재 교구비를 구입할 때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으며, 다음의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㉕ 교사: 시간 연장 보육료를 학부모님들께서 지급하면 어린이집 운영비에 쓰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의 보육료를 모아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비에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개별면담 2010. 8. 17)

R 교사: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지만 대부분 주간 보육실에서 사용될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저는 시간 연장 아이들이 부모님이 오실 동안 다양한 교구들을 사용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면 해요,

(개별면담 2010. 8. 20)

S 교사: 혼합연령으로 있다 보니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놀잇감이 다르더라고요, 다양한 교재·교구가 마련되어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개별면담 2010. 8. 19)

5)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 시간 연장 교사 2인 이상 의무적 배치

교사들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안전을 위해 교사 2인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늦은 시간 아동과 여자 교사들만 있어 위험한 상황 시 한 명의 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동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 경찰 기동대와 연계하여 지금보다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아동이 갑작스러운 발열과 응급상황 시 부모님과 연결이 두절되고 인근 병원을 이동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다음 이야기를 통해 교사들의 이야기를 확인 할 수 있다.

H 교사: 아이가 오전부터 아파서 주간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아픈거예요, 부모님께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안 되고 인근병원을 가려고 해도 문이 닫혀 갈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이집 주변 대학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정말 진땀이 나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개별면담 2010. 7. 12)

S 교사: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었더니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어린이집 창문 넘어 들어와서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이도 아저씨께 이야기를 잘해서 마무리는 잘 되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 뒤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개별면담 2010. 8. 27)

한편, K교사는 많은 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아교사는 전문가에 의한 훈련을 통해 응급처치에 필요한 정확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외국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사들을 위해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신입 교사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장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아교사들을 위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H 교사: 아이들의 위급한 상황 시 인근병원과 연락망이 설치되어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서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면 해요,

(개별면담 2010. 8. 27)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인근 병원과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야간 응급 상황 시 신속하고 빠르게 병원에 이동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늦은 시간 아동과 여자 교사만 있어 위험한 상황 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 경찰 기동대와 연계하여 교사와 아동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응급 상황 시 교사들의 응급처치가 필요하지만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외국처럼 응급처치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6) 시간 연장반을 위한 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연구 참여자들의 보육시설의 경우 시간 연장반 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관문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었다. 면담을 통해 교사들은 시간 연장반 아동 및 교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확보 되어서 아이들이 가정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아동들은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자신의 부모인지 뛰어나가거나 아님 문 앞에서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귀가하는 부모님의 출입절차를 위한 CCTV 설치와 보호자의 얼굴을 확인 할 수 있는 인터폰이 설치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H 교사: 야간에 수시로 출입하는 보호자와 또는 외부인을 확인절차 할 수 있는 cctv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개별면담 2010. 8. 23)

K 교사 : 오랜 시간 부모님과 떨어져있는 아이들을 위해 정서적이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보육실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개별면담 2010. 8. 25)

S 교사: 아이들이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자신의 부모인지 뛰어나 가고 있어요, 보육실에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인터폰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어요,

(개별면담 2010. 8. 27)

7) 아동들의 영양가 있는 저녁식사를 위한 취사부 배치

연구 참여자들의 보육 시설을 참여한 결과 시간 연장 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였다. 시간 연장 아동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점심식사와 동일한 식단으로 한 두가지 정도 다른 반찬으로 제공되어 있어서 정성 있는 식단은 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교사들은 아동들의 저녁 식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비운 사이에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저녁 식사 후 설거지와 뒷정리로 인해 아동들의 수업을 진행하기엔 차질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취사부를 배치하여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풍부한 식단과 간식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H 교사: 저희 원에도 취사부 선생님이 오후에도 계셔서 아이들의 식사 준비와 아이들의 간식을 마련해주셨으면 해요, 저녁 식사 후 늦은 시간까지 있는 아이들의 경우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이왕이면 간식도 준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관찰 2010. 4. 16)

R 교사: 저녁식사 시간에는 정말 바빠요, 주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잠깐 돌보아 주시지만 배식하고 설거지 하고 뒷정리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아이들이 유독 시간 연장을 많이 신청했을 때 저 혼자서는 벅찰 때가 있어요,

(참여관찰 2010. 5. 7)

S 교사: 한 아이가 저녁을 다 먹고 밥을 더 달라고 하여 주방으로 잠깐 이동한 사이에 아이들끼리 포크로 싸워서 여자 아이얼굴에 상처가 심하게 나서 학

부모님끼리 거의 싸움까지 날 뻔 했어요.

(참여관찰 2010. 4. 17)

시간 연장 담당 교사들은 저녁식사 준비와 저녁식사 후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다 보면 아동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시간 연장 교사가 아동들에게 전념 할 수 있도록 취사부가 배치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연장 담당 교사들의 담론을 통하여 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로 하게 된 동기와 보람 그리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점에 대해 교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 연장 담당 교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보육시설에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맞벌이 가정에 대한 행복한 지원, 가정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가 최고, 부모는 웃지만 아이들은 운다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첫째, 보육교사들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맞벌이 부모와 한 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지원책이며,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정해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 연장반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서연금과 선경식(2001)의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해체가정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체가정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근무 형태가 다양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수요와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둘째, 하루 종일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영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유롭게 활동해야 한다는 권혁미(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 지내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의 따뜻한 관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시간 연장반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셋째,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아동에게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 하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정이 결핍되기 쉬우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표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부모로부터 관심과 결핍”과 “부모와의 격리”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성애·홍혜경(2007)의 의견을 지지해준다.

따라서 시간 연장반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도록 노력해야하며, 교사들 역시 시간 연장반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로 근무하게 된 동기와 보람은 무엇인가?

시간 연장 보육 담당 교사로 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기혼인 교사는 주간에 가사 및 육아 때문에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미혼인 교사는 자신의 취미 생활 및 학업 때문에 시간 연장 교사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 연장반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애환들 가운데에서도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보람들을 표현하였다. 그 중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의 즐거움과 학부모의 감사 인사를 들 수 있다.

첫째,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하게 된 동기는 주간에 가사 및 육아일과 자신의 취미 생활 및 학업 등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결혼 여부에 대해 알아본 황윤경(2008)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 교사는 종일교사의 역할이 부담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34.8%이고, 기혼교사는 주간에 가사 및 육아를 할 수 있어서라는 56.8%가 응답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기적 요인은 행동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양영아(2005)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보육시설장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동기를 확인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의 방향 및 설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시간 연장 담당 보육교사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격려하고 교

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간 연장 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애환들 가운데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의 즐거움과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사립유치원 원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애환과 보람에 관련한 최서영(200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의 즐거움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힘이 들거나, 지칠 때 아이들이 위로가 되고 새 학기 때 보다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은 교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의 감사의 표현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와 말 한마디로 인해 교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의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의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에게 대한 학부모의 배려가 필요하겠다.

3) 시간 연장 보육담당 교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면담을 분석한 결과 시간 연장 보육담당 교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시간 연장 아동 및 교사를 위한 공간 부족, 영·유아 통합보육의 어려움, 시간 연장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의 어려움, 교사로서 소속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시간 연장반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과 적절한 놀잇감 구성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주간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관환(2001)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나 아직도 시간 연장을 이용하는 교사와 유아를 위한 전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로 인해 주간 교사와 시간 연장 교사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고, 단일 연령으로 구성된 주간 교실을 사용하고 있어 영유아들의 발달에 맞는 적절한 교구 제시가 어려워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배성희(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활동 시 결과물 전시, 영유아들의 개인 컵, 개인 칫솔 등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개인물품 관리 및 보관이 용이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사와 영유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 보육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시간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개 3~7세로 구성되어 있어, 최고 4년의 연령차이로 인해 통합으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놀이 형태, 집중시간, 수업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합으로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조희숙(2004)의 의견을 지지해준다. 하지만 큰 연령 유아가 어린유아를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통합 보육은 영유아들의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과 아동들 간의 서로 도움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발달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개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참여한 교사들은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연간, 월간, 주간계획안을 참고하여 하루에 한 가지 활동으로 계획되고 있었지만 주간 보육에 비해 참고할 만한 서적이거나 교육자료 등이 부족하여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장시간 보육으로 인해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수업 진행에 맥이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였으며, 주간 보육시간에 배운 주제와 야간에서 배우는 주제가 겹치는 경우 아이들의 수업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 주간 교사와 야간 교사와 의논하여 시간 연장반 만의 교육 특색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넷째, Lee(2001)의 연구에 의하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원 사이의 인간관계이다. 특히 보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어느 관계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원만한 동료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직무만족도의 기초적인 요인이 된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 보았듯이 시간 연장 담당 교사들의 경우 주간 교사와 출퇴근 시간이 다르고, 업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차이로 인해 동료 관계가 점점 멀어 진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이는 송미연(2002)의 연구에서 주간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야간 교사로서의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시간 연장 교사들을 배려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료관계가 서로 친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4) 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은 어떠한가?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생각은 시간 연장 담당 교사의 근무수당 및 시간외 수당 지원, 대체교사제도 활용, 다양한 시간 연장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시간 연장 아동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시간 연장 교사 2인 이상 의무적 배치, 시간 연장반을 위한 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아동들의 영양가 있는 저녁식사를 위한 취사부 배치 등 일곱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한 교사들은 시간 연장 담당 교사의 근무수당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시간 연장 담당 교사의 경우, 주간 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주간 교사들보다 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특수성을 인정해야 해야 하고, 늦은 시간까지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적은 보수에 대해 교사들은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보수에 대한 불만족한다는 송미연(2002)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와 과중된 업무는 교사의 이직률을 높이게 되고, 전문직으로서 자리매김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윤옥경(2009)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간 연장 교사들을 위한 근무수당으로 월 30만원으로 지급 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 교사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사기와 긍지를 갖고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 수당 및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거나 급여를 일정수준으로 인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여 보육시설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 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을 위해 2009년부터 각 지역의 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주간 보육교사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간 연장 교사들은 여름휴가나 연차를 사용할 때 주간 교사와 시설장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협조가 따르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으며, 휴가를 다녀오면서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대체교사제의 활용은 보육교사의 연월차 휴가 시에만 1주일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1주일 보다 늘리고 보조교사 또는 보육 도우미 연락망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바람직한 시간 연장반 운영을 위해서는 시간 연장반 프로그램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사들이 제시한 시간 연장반 프로그램 재정립의 내용은 ‘정서적 안정에 초점된 프로그램’, ‘실외 놀이의 활성화’, ‘융통성 있는 일과 운영’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시간 연장 프로그램은 정서적 안정에 초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 연장 보육은 인지적 학습보다는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이론과 실체가 조화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영유아들이 질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장시간 보육시설 내에 있어야 하는 유아들은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도록 실외놀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정해진 틀의 일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융통성 있게 일과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교육 수업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 주간 아동들을 위해 교구들이 마련되어 있어 시간 연장 아동들을 위한 교재교구가 부족함에 대해 교사들은 지적하였다.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는 영유아들에게 있어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교구가 보육시설 안에

비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 시간 연장 교사 2인 이상 의무적 배치해야 한다고 교사들은 언급했다.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늦은 시간 영유아와 여자 교사만 남아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시설 내에 사설 보안기간을 이용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이인숙(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경찰 기동대와 연결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조희숙(2004) 연구에서도 보육교사는 야간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히 경찰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가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응급상황 시 부모와 연락이 두절 될 경우 교사 혼자 대처하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응급상황시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보육시설과 인근 지점 병원과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되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임이 분명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처음 설립 당시 시간 연장 보육을 염두해 두지 않고 지은 시설로서 영유아들이 안정적인 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 및 보수가 필요하다. 이는 서경미(2001)의 연구에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의 설치 및 안전설비를 확충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시설의 경우 시간 연장 교사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점심 식단에 한 두가지 정도 음식

이 바뀌어서 식단이 제공되어 있어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시간 연장 교사가 교실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영유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교사들은 언급하였다.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조희숙(2004)의 시간 연장 보육 담당 취사부의 부재는 시간 연장 보육 시 보육교사가 1명일 경우 보육교사가 취사부 역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저녁 식사와 간식 준비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사이 유아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간 연장 담당 보육 취사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에 전념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아이들이 저녁식사 후 설거지 및 주방일 까지 하고 있어 교사들은 자신의 직무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질 높은 저녁식사 및 간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 담당 취사부가 배치되어야 하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간 연장 담당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로서 참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후속 연구로는 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공립·직장·민간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교사3명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연령, 학력,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대 사회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가정에서 아동 보호 및 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양한

특수보육 형태의 보육시설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시설 운영비 부족 및 야간 프로그램 부재,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보다 향상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아동들이 긍정적이고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 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김매희, 이경희, 정정옥 (2000). 야간 및 24시간 보육실태 및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국영유아 보육학 제 22집. 27-56. 서울: 한국영유아보육
- 권혁미 (2010). 시간연장 보육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일상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영 (2006). 24시간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야간 보육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1. 서울: 문음사
- 김현숙 (1996). 보육시설의 사회적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연구 논문. 제 19집. 서울: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 김혜성 (200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소진 경험과 직무만족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진 (2009).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희 (2008). 시간 연장 보육에서 만 2세 영아들이 겪는 어려움과 적응과정.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 보육사업 안내
- 서경미 (2001). 24시간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연금 (2009).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 분석.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선경식 (2001).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

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미연 (2002). 24시간 어린이집 야간보육교사의 근무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진 (1993). 유아교육기관의 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성화 (2008). 시간 연장 보육의 질 개선에 관한 연구: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 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아 (2005). 보육 본질과 운영 리더십에 대한 보육시설장의 인식 및 실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옥승 (1996). 각국의 탁아제도 비교 연구. 창지사
- 여성부 (2004). 보육사업 안내
- 유금미 (2009). 보육시설 시간 연장 운영실태 및 종사자의 학부모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건호 (2003). 유아교육 교사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비교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제 2권 제 3호 통권 제52호. p123-146
- 윤옥경 (2009).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환 (2001). 24시간 보육시설의 필요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2004).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주 (1984).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외 (2007). 직장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프로그램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

- 이지원 (2010).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선 (2007).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미경 (2004). 가정보육시설의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의 운영실태. 경남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진 (2009).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직무만족에 관
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 (1999). 유치원 유아들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숙경 (2002).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 (2004).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종사자 인식과 운영 현황.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성애, 홍혜경 (2007). 영·유아 생활지도. 서울 : 양서원
- 통계청 (2009). 경제 활동 인구 조사서
- 최서영 (2008). 사립유치원 원장의 애환과 보람 그리고 희망. 배재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2002).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 (2001). 기혼 여성 야간 보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학술지
- 한유진 (2009).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윤경 (2008).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용희 (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그 방법과 쟁점. 교육인류학 연구회 199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3-51
- Bogdan. R. C & Biklen (1982). 교육연구의 새 접근(신옥순 역, 1981). 서울: 교육과학사
- Lee, K, W (2001), Teacher's perception of conflist and it's Relationship to selected out 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ustin: universty of Texas
- Kaha, R. L. (1981), Work and Health, New York : Wiley.
- Marriam, B, S (1998). 질적 사례 연구법- 교육학에서의 질적 사례 연구법, 허미혜(역), 서울: 양서원
- Mason. j. (1996). 질적연구방법론. 김두섭 역. 1999. 서울: 나남출판
- Patton, M.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 CA: Sage Publications, Inc
-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신재영 역): 시그마프레스 (원서 1980년 출판)

ABSTRACT

Analysis of Overtime Daycare Program Instructors' Discussions on
Their Jobs.

Han, Ji-H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rough many discussions with teachers who are working as overtime daycare program instructors,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are the teachers' opinions on overtime daycare program and to find the way to improve this program in depth. With this purpose, to draw a meaningful implication, I approached to this matter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 The followings are the issues of this study.

1. What are the teachers' opinions on overtime daycare program?
2. How they started working for overtime daycare program and what are the rewards they could get?
3. What are the difficulties working as a overtime daycare program instructor?
4. What are the instructors' opinions on ideal management of overtime daycare program?

From April 5 to August 27 in 2010, I had 6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24 individual interviews with 3 instructors. All subjects have more than 2 years of experiences on site. Data was collected from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 and material research. To analyze data, I classified and categorized interview transcripts and notes I took during field study.

These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while overtime daycare program started by parents and related administration offices requests in the initial stage, instructors were pretty positive on this program. At the same time, instructors advise that they should provide infants with homelike environment so the infants can feel secured. On the other hand, they also suggest that family and daycare center must be linked and take care of infants with love and devotion in order to prevent their problematic behavior because they are parted from their parents too long.

Second, for married instructors, they work for overtime daycare program because they need to spend daytime at home taking care of their own children and house chores. For single instructors, most of them go to school or spend time on their hobbies during daytime. In addition, they say they feel rewarded when they have fun being with children and when parents show their appreciation.

Third, most of overtime daycare programs were implemented in the daytime daycare facilities. Due to diversity in children's age group and

lack of data and references,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program management. While communication between daytime daycare instructors and overtime daycare instructors is crucial, their different working hour makes it not easy to have a bond among instructors. Therefore, in order to keep a good relationship among all instructors, centers need to work on establishing a close rapport with instructors.

Fourth, since maltreatment and overly demanding jobs can cause higher rate of changing jobs, national special duty allowance and substitute teacher system must be actively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they point out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program development for infants' emotional stability and outdoor activities, and textbook research.

Finally, in case of emergency and for the security reason, there must be more than two instructors presence while improvement on facility environment is necessary for children's health and emotional stability. Also, they said they need feeding facility to provide children with nutritious meals and snacks.